

# 정책톡톡

## 강원도민이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용은?

임재영

033-250-1385 jylimecon@gi.re.kr

2022년 강원도민이 수도권 '빅 5' 병원인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약 1,975억 원으로 2013년 기준 833억 원대비 10년 동안 1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 현상은 강원도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탓이기도 하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기인하기도 하다.

2022년 기준 강원도민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4개 진료과목별 총 입원 건수 중 수도권의 의료기관에 입원한 건수 비중은 20.9%~40.3% 수준이며, 특히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이러한 수도권 원정 진료 중, 강원도와 수도권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론되는 입원 건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9%에서 16.1%를 차지하며, 이로 인해 강원도민이 추가로 지출한 간병비와 교통비의 합은 2022년 기준 194.4억 원으로 추계되었다.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지출 감소를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충이 필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강원도민의 필수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지역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Gi 강원연구원**

‘정책톡톡’은 강원도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위해 시의성 있고 실용적인 정책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강원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하실 경우에는 「정책톡톡」 및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 현황은?

### 2022년 강원도민이 수도권 '빅5'병원<sup>1)</sup>에서 지불한 진료비는 약 1,975억 원<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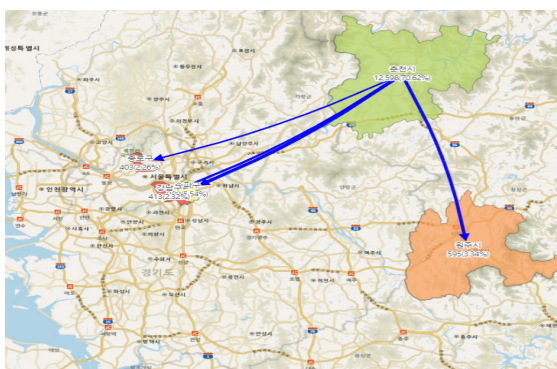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근거하면 강원도민은 2013년 이들 병원에서 833억 원 정도를 지불하였는데 10년 동안 137% 증가

### 이러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강원도민이 느끼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

- 단위면적당(100km<sup>2</sup>)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는 강원도 0.37개로 17개 광역시도 평균 8.71개 대비 4.2% 수준
- 의료인력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4개 진료과목 전문의 수가 광역시도 평균을 밑돌고 있음

### 강원도민 4개 진료과목별 입원 건수 중 수도권 의료기관에 입원한 건수 비중은 20.9%~40.3% 수준

-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DB자료 활용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료이용 유출 규모 확인



자료원: Health Map(<https://www.healthmap.or.kr/indicator/>)

#### 내과

↓ 역선택

유출 지역	유출 인구수	비율
춘천시	12,598	70.62%
송파구	989	5.54%
원주시	595	3.34%
강남구	413	2.32%
종로구	403	2.26%

#### <그림 1> 원정 의료이용 규모 확인 방법

- 2022년 기준 춘천시민의 내과 입원 진료를 위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18.8%인데, 이중 송파구가 차지한 5.5%는 송파구에 위치한 아산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추측

1) 서울대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2) 강원도민일보, 2023.10.09.

● 2022년 기준 4개 진료과목별 수도권 원정 진료 비율

- (내과) 강원도민의 총 입원 건수는 129,673건이었으며,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한 건수 비중은 20.9%, 17개 광역시도 평균<sup>3)</sup> 14.6%의 143% 수준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음
- (외과) 강원도민의 총 입원 건수는 25,346건이었으며,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한 건수 비중은 39.3%, 17개 광역시도 평균 18.0%의 218%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 (산부인과) 강원도민의 총 입원 건수는 10,051건이었으며,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한 건수 비중은 40.3%, 17개 광역시도 평균 16.8%의 240%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 (정형외과) 강원도민의 총 입원 건수는 51,970건이었으며, 수도권 의료기관 입원 건수 비중은 24.7%, 17개 광역시도 평균 10.2%의 242%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음

02

##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 접근성 문제 때문?

### I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의료접근성이 미친 영향은 17개 광역시도 대비 낮았음

● 광역시도 대상 분석결과와 강원도 18개 시군 대상 분석결과를 비교할 때 접근성이 수도권 원정 의료 이용에 미친 영향은 강원지역이 광역시도 대비 작았음

- 접근성은 전체 입원 건수 대비 기준시간인 60분 이내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건수의 비중을 통해 평가
- 접근성 및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과의 경우 광역시도 대비 강원지역의 영향은 절반 정도로 나타남

### I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접근성 이외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기인한 의료이용이 존재했을 개연성 확인

● 접근성,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 및 의료인프라 등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 규모와 실제 원정 의료이용 규모를 비교하여 실제치의 예측치 초과 정도 추계

- 실제치와 예측치 간 격차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

### I 2022년 기준 강원도민의 총 입원 건수 대비 1.84%~16.05%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

3) 수도권으로 분류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평균 계산 시 제외



<표 1> 광역시도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 유출 규모 실제치와 예측치 격차

지역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서울시	-0.50%	-1.33%	1.42%	-4.63%
경기도	13.74%	-10.60%	-9.40%	-7.99%
강원자치도	1.84%	12.84%	16.05%	13.88%
충청남도	6.55%	3.99%	3.76%	10.89%
충청북도	4.70%	7.76%	10.06%	7.39%
전라남도	-6.21%	-6.19%	-6.78%	-1.60%
전라북도	-3.70%	-4.20%	4.69%	0.00%
경상남도	-7.87%	-8.68%	-6.83%	-5.06%
경상북도	-5.61%	-4.73%	-5.99%	-0.48%
제주자치도	-0.60%	6.38%	0.54%	6.29%
대전광역시	0.24%	4.22%	0.37%	-2.36%
광주광역시	-3.92%	0.41%	1.75%	-5.47%
대구광역시	-4.91%	-4.19%	-3.67%	-4.29%
울산광역시	-4.94%	-5.11%	-12.74%	-5.46%
부산광역시	-5.89%	-4.02%	-2.11%	-7.50%
인천광역시	10.41%	-3.91%	3.85%	2.06%
세종자치시	6.10%	11.62%	1.78%	1.39%
광역시장 평균	-0.03%	-0.34%	-0.19%	-0.17%

- **(내과)** 강원도민이 내과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총 입원 건수 129,673건 중 1.84%인 2,386건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  
- 격차 규모 1.84%는 17개 광역시장<sup>4)</sup> 중 충남, 세종, 충북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
- **(외과)** 강원도민이 외과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총 입원 건수 25,346건 중 12.84%인 3,254건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  
- 격차 규모 12.84%는 17개 광역시장 중 가장 큰 규모
- **(산부인과)** 강원도민이 산부인과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총 입원 건수 10,051건 중 16.05%인 1,613건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  
- 격차 규모 16.05%는 17개 광역시장 중 가장 큰 규모
- **(정형외과)** 강원도민이 정형외과 관련 질환으로 입원한 총 입원 건수 51,970건 중 13.88%인 7,213건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의해 발생  
- 격차 규모 13.88%는 17개 광역시장 중 가장 큰 규모

4) 이하 분석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외



03

## 강원도민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때문에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진료에 지출한 비용은?

Ⅰ 2022년 강원도민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194.4억 원

- 2022년 강원도민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등의 이유로 예측된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은 194.4억 원

<표 2> 강원도민의 2022년 기준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지출한 총비용

지역	간병 비용 (A)	교통비용 (B)	총비용 (A+B)
내과	4,307 백만 원	165 백만 원	4,472 백만 원
외과	4,263 백만 원	224 백만 원	4,488 백만 원
산부인과	921 백만 원	111 백만 원	1,033 백만 원
정형외과	8,948 백만 원	498 백만 원	9,446 백만 원
총합	18,439 백만 원	998 백만 원	19,437 백만 원

### • 수도권 원정 의료비용에 소요된 비용은 간병비와 교통비임

- 강원도 관내 의료이용이던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이던 공히 지불되는 진료비는 제외
- 수도권에 위치한 의료기관 입원으로 추가 소요되는 간병비용과 수도권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고려
- (간병비) 진료과목별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량, 즉 입원 건수에 평균재원일수 및 1일당 간병비를 곱하여 간병비용 계산
  - 진료과목별 평균재원일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이용현황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경영실태조사 자료 활용
  - 1일당 간병비는 대한간병인협회 및 관련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
- (교통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서울 동서울터미널까지 소요되는 시외버스 왕복요금의 평균치와 동서울 터미널에서 '빅5'병원까지 소요되는 왕복 택시요금의 평균치 합계
  - 강원도 18개 시군 → 동서울터미널 시외버스 왕복요금 평균치는 39,356원
  - 동서울터미널 → '빅5'병원 왕복 택시요금 평균치는 29,640원
  - 위 두 비용의 합계인 68,996원을 입원 건수당 교통비용으로 활용



● 4개 진료과목별 질환 치료를 위한 수도권 원정 의료이용에 소요된 비용은 194.4억 원

- (내과) 총비용 44.7억 원 지출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는 2,386건
- (간병비) 43.1억 원으로 평균 재원일수 15.02일, 1일 간병비용 120,000원 활용
- (교통비) 1.6억 원으로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에 입원 건수당 교통비용 곱함

- (외과) 총비용 44.9억 원 지출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는 3,254건
- (간병비) 42.7억 원으로 평균 재원일수 10.92일, 1일 간병비용 120,000원 활용
- (교통비) 2.2억 원으로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에 입원 건수당 교통비용 곱함

- (산부인과) 총비용 10.3억 원 지출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는 1,613건
- (간병비) 9.2억 원으로 평균 재원일수 4.76일, 1일 간병비용 120,000원 활용
- (교통비) 1.1억 원으로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에 입원 건수당 교통비용 곱함

- (정형외과) 총비용 94.5억 원 지출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의 이유로 이루어진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는 7,213건
- (간병비) 89.5억 원으로 평균 재원일수 10.34일, 1일 간병비용 120,000원 활용
- (교통비) 5.0억 원으로 수도권 원정 입원 건수에 입원 건수당 교통비용 곱함

04

##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지출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은?

### I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의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을 위해 필수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필요

- 기능·수요 중심의 협력적 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기능 정립 지원 필요
-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지역 내 거점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 병·의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수

●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안정적 지역 의료인력 확보 필요

-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안정적인 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 관점에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정확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단기적 관점에서 현행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료할 수 있는 체계 고려 필요
- 이를 위해 퇴직 교수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풀(pool)을 설치하여 수도권으로의 원정 의료이용 유출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필요

- 공공의료기관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역량 강화 도모
- 지역거점병원 기능 수행을 위해 진료 포괄성 증대, 수술비율 증대 등을 위한 방안 마련
  - (진료 포괄성 증대) 의료기관이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수의 증가에 따라 진료 포괄성이 증대하므로 지역 거점병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 중심으로 진료과 개설 지원
  - (수술비율 증대) 수술을 수행할 수 있는 진료과목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과 개설을 지원함. 특히 주요 수술 및 다빈도 수술질환 등을 고려하여 수술실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고려

## I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충 필요를 위한 국가 혹은 도 지원 필요

- 2019년 기준 강원도 원주, 강릉, 속초, 영월, 삼척 등 도내 5개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이 134.4억 원<sup>5)</sup>으로 필수의료제공으로 인한 도내 의료원의 적자 규모 증가 추세
  - 필수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고압산소치료실, 응급실 등 의료 안전망 시설 운영이 95.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해 발생한 강원도민의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해 2022년 한 해 소요된 비용이 194.4억 원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공공의료기관의 양적·질적 확충을 통해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비용이 절감된다면 절감액 규모는 도내 5개 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음

5)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2023, 한국능률협회컨설팅)